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김종유 (2191288)	<p>동물농장을 읽는 동안 평등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쥔 집단이 그 말을 어떻게 왜곡하는지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풍차 논쟁을 통해 정책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생생하게 느꼈다. 또 벤자민의 침묵이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공감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책을 읽는 재미뿐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넓어진 것 같다.</p>
	2	장우영 (1971136)	<p>이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스컬러처럼 체제에 협조해 거짓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벤자민처럼 알고도 침묵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쪽도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부당함 앞에서 말할 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내용이 단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도 반복되는 문제라는 점도 새롭게 느꼈다. 다음 독서클럽에서도 이런 깊은 논의를 다시 나누고 싶다.</p>
	3	이호형 (2271200)	<p>나는 동물농장을 현대 정치와 연결해 읽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나폴레옹의 선전 방식이 지금의 가짜뉴스나 편향된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 동물들이 자유를 잃어가는 과정은 결국 비판적 사고가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 역시 일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일 때 더 의심하고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사회를 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계기였다.</p>
	4	정승환 (2571384)	<p>마지막으로 책을 읽은 적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나는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니었다. 사실 책을 세 페이지만 읽어도 금방 잠이 몰려오곤 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재밌게 독서를 하게 되었다. 이 다음은 어떤 장면이 나올지, 앞으로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다. 이 기회를 통해 독서의 재미를 조금은 알게 되었다. 다음 독서클럽 활동도 참여할 예정이며 너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p>